TRICITY KoAm 트라이시티 코암

Korean American

트라이시티한인장로교회 TRICITY KOREAN PRESBYTERIAN CHURCH

발행번호 3 **Fall 2014**

KoAm 칼럼– 임성철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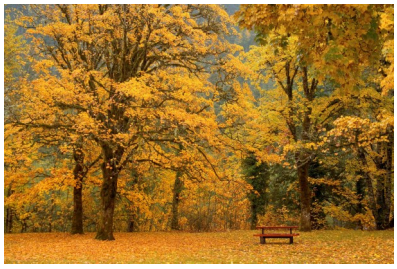
음악없는 음악

젊은 날에 음악을 듣지 않으면 안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소니 웨크맨 카세트를 주머니에, 지금의 휴대폰처럼 지니고 다녔습니다. 클래식 음악이 전공이기에 슈베르트의 '아름다운 물레 방아간의 아가씨' 와 같은 독일의 가곡들을 산책하며 듣는 기분은 남다른 느낌이였습니다. 베토벤의 '월광소나타'는 감수성이 예민한 고등학교 때 처음 들어, 요즘 말로 가슴에 꽂쳤습니다. 그리고 그 음악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때도 지금의 아이들처럼 이어폰을 쓰고 다니는 것이 그리 어색한 모습이 아니였습니다. 다만 클래식 음악이 전공이니 유행가보다는 고전음악을 들었다는 점이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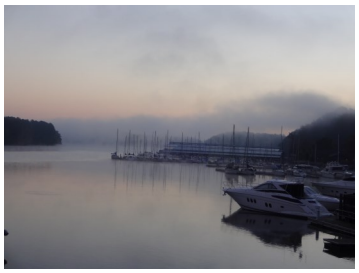
나이가 이제 중년을 넘어선 저는 음악을 그리 많이 듣지 않습니다. 많은 CD가 있고 좋은 음향기기가 있는데도 그렇습니다. 더욱이 미국에서는 차를 탈 때가 많은데, 혼자 먼 길을 운전 할 때도 음악을 좀처럼 듣지 않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할 때, 아이들의 성화에 못 이겨 요즘 유행가를 듣곤하지만 그리 즐거운 소리로 들리지 않습니다. 유행가 여서가 아니라, 음악을 들어도 피곤하게 들리는 때가 많습니다.

저는 조용한 시간을 좋아합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기를 좋아합니다. 마음에서 들려오는 음악입니다. 아침 커피 한잔을 들고 밖에 포치에 나가면 나무잎이 날리는 소리가 슈만의 가곡보다도 더 섬세한 노래로 들립니다, 벌레들과 새들이 이곳 저곳 오가며 내는 소리는 자연 속으로 스며드는 쇼팽의 야상곡입니다. 시원한 가을 바람이 내 가슴 속으로 스쳐 지나쳐 갈 때는 파바롯티의 칸쪼네를 듣는 것보다 더 감미롭습니다. 밤 달빛이 있는 호수가를, 안개가 자욱한 호수를 보는 것은 '월광 소나타'의 그것 보다 더 감상적입니다. 여름날 천둥과 비 바람이 몰아칠 때는 말러의 어느 교향곡보다도 더 걷잡을 수 없는 웅장한 음악을 듣습니다. 특히나 그런날 한 밤중에 자다가 깨어 밖으로 나와 서 있으면 그 엄청난 자연의 소리와 연주 앞에, 마치 오케스트라 연주홀의 맨 앞에 앉아 있는 어느 소녀보다도 더 큰 감명을 받습니다.

자연과 세상에는 온갖 음악으로 가득합니다. 그 음악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듣는 소리입니다. 조물주를 알고 그분에 대한 경외와 존중이 있으면 들 을 수있는 음악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 중 하나, 상상력을 펴보는 것입니다.



자연의 소리 Image from Google



자연의 소리 Joe Weeler State Park

목차

시간예술과 공간예술	2
한인회 소식	2
교회 소식	2
신앙 기고	3
선교지 소식	3
추천도서	4
그림으로 보는 명상	4

그랜드 캐년 Image from Google

시간예술과 공간예술–임성철

아리조나의 그랜드 캐년에 다닿아 목적지에 도착해 숙박지를 정하고 좀 쉬었으면 하면서도, 그 유명한 광경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 발걸음이 밖으로 향한다. 몇 백 미터 아니, 천미터가 넘는 낭떨어지를 고개를 내밀어 바라 보니 자연의 웅장한 모습은 조그만한 인간의 가슴으로 안아보고 작은 머리로 생각 하기에는 너무나도 광대해서 나 자신이 버겁다. 끝없는 정적과 저녁 노을에 젖은 붉은 금빛 암벽들, 어느 위대한 화가가 그림을 그린다 하여도, 이 처럼 느껴지는 가슴 벅찬 광경들을 표현해 내지 못하리라.

그랜드 캐년을 다녀온 기억을 더듬으며 느꼈던 기분을 써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때 느꼈던 그 느낌과 그 환희의 기억들이 사실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건망증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꼭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에 있어서 "죽음" 다음으로 인간의 한계를 보여 주는 창조주의 또 다른 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만약 인간에게 건망증이 없었다면 전에 보았던 그랜드 캐년의 장관의 모습을 지금 이 시간 생각 할 때, 보고 느꼈던 모든 것이 똑같이 현실감 있게 나타 나야 합니다. 자연의 경관은 어떤 의미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가 있다 하여도 조각품이나 건축물을 감상하듯 공간예술의 범위에 들어 갑니다.

그러면 음악은 어떨까요. 얼마전에도 줄리어드에서 피아노를 전공한 에스더 박 교수의 연주가 ETSU에서 있었습니다. 정말 멋진 연주였습니다. 그리고 11월 중순이면 오선주 교수의 연주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연주회에 가려면 0월 0일 0시, 00홀에 가야만 그 연주회를 감상 할 수 가 있습니다. 그 다음 날 어제의 멋진 연주를 더듬어 보아도 그 기억들이 생기있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건망증입니다.

시간예술 또한 사람에게 건망증이 없다면, 즉 내가 생각하고 싶은 연주를 언제든지 똑같이 생각 할 수 있다면, 시간 예술로서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가장 멋있는 연주만을 아무때나 들을 수 있다면, 다른 많은 연주회의 의미는 어디에 있을까요? 건망증이 사람에게 없다면 과학과 논리는 상상 할 수 없을 정도로 발달하였겠지만, 예술과 문학의 위치는 더욱 더 의미를 잃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건망증은 벌이 아니라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한인회 가을 야유 모임

한인회 소식

트라이시티스(존슨시티, 킹스포트, 브리스톨) 지역을 중심하여 조직된 한인회가 있습니다.

올 가을 야유회를 Steele Creek Park 에서 갖었습니다. 60여명이 모여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갖었습니다. 다음 모임은 2015년 설날(구정)에 모이기로 약속하고 헤어졌습니다.

한인회 연락처: 서갑식 회장

423-288-6279(h)

kabseo@gmail.com

헌당 예배 모습

교회 소식

트라이 시티 한인 장로교회는 9월 28일(주일) 오후 5시에 헌당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당과 목사관을 구입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축제의 예배였습니다. 전임 목사님들과 지역 목사님, 지인들과 지역의 한인등 80여명이 모여 예배드리고 친교의 시간을 갖었습니다. ,

트라이 시티 한인 장로 교회를 위해 기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헌당 예배 친교 시간

신앙 기고 - 허림 권사

첫 사랑

전 세계 곳곳 마다 크리스챤 가족으로 살아 가시는 여려분들과 하나님의 첫사랑을 만나지 못하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의 첫 사랑의 만남을 고백드리며, 이 시간을 통해서 보고 싶은 여려분님께 인사를 드립니다

1972 별 이야기. 1974 인어 이야기, 1976 엄마 이야기, 이야기 노래만 불려서 이야기 가수라 는 별명을 가졌던. 복음 가수 허림입니다. 복음 가수로 33년 동안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사모하면서 찬양 간증으로 주님을 만난 첫 사랑을 전하게 됐읍니다.

가는 곳마다 훌륭한 목사님들을 만나게 해 주시고 사랑의 말씀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해 주셨던 귀한 목사님들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저를 꼭 안아 주시며 붙잡아 주시고, 울고 웃으시며, 반가워, 반가워..... 주님 사랑 안에 만남을 기뻐해 주시던 수 없는 성도님들의 모습도 그립습니다.

월남 위문 미 8군 쇼를 3년간 공연를 마치고 1972 2월에 다시 한국에 도착했읍니다. 그해 별 이야기 첫 작품인 노래가 나왔지만……, 태어난지 29째 날부터 거의 4년 가까이 서울대학 부속병원의 병실에서 저와 내 아들이 살게 됩니다. 엄마! 이 한마디 말도 못한, 내 애기는... 어느날, 어렵게 숨을 쉬다가 끝내 세상을 떠났읍니다.

그 해 어머님 마저 애기가 죽기 9개월 전에 이미 돌아 가셨읍니다. 일년 안으로 온 가족이 모두 내 곁을 떠나 갔읍니다. 그 날부터 모든 것이, 하늘도 땅도 모두 보이는 것이 캄캄하기만 했읍니다. 몹시도 무서웠읍니다.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 그냥 마냥 밤,낮을 울고 또 울고, 울기만 했지요..

그러던 어느날, 나에게 기적이 찾아왔읍니다. 지금 템파에서 오승일 목사님(침례교회)의 방은미 사모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셨고, 내 손을 꼭잡고 연예인들만 모여서 성경공부하는 서대문(신학대학) 2층 교실로 나를 안내 해 주었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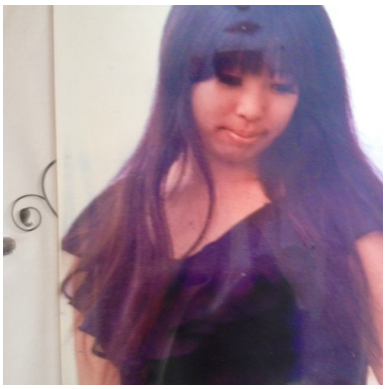
코메디안, 성우, 가수, 영화배우, 탤렌트, 감독, 문화방송 합창단, 많은 연예인을 만나게 됐읍니다. 흐르는 땀을 계속 닦으시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하용조 목사님을 만나게 됐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성경)책을 만나게 됐읍니다.

깜짝, 깜짝 나를 놀라게 하는 성경 말씀, 도저히 믿기 어려운 신기한 말씀을 들으면서 조건 없이 그냥 믿으면서, 그냥 받아 드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 책에 써 있는 말씀을 열심이 배우기 시작했읍니다.

외로워서, 무서워서 시간, 시간마다 가슴 아팠던 슬픔 사연만이 가졌던 나, 나 만이 불행한 여자라고 생각했던 나, 그런데 제가 놀라운 사실 앞에 서게 됐읍니다.

내 마음대로 볼 수 있는 이 두 눈을 주신 것과, 듣을 수 있는 두 귀를 주신 것과, 내 마음대로 숨을 쉬고 있었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세상에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놀라운 감사를 깨닫게 됐으니, 다 하나님로 부터 성령을 받는 날, 첫 사랑을 경험하게 됐읍니다.

하얀 구름 위에 두둥실 떠서 살픈, 살픈 걸어가는 느낌과, 어린 아이처럼 마냥... 그냥 기쁘기만 했던 그 날, 바로 하나님의 첫 사랑을 제가 만나게 됐읍니다. (다음 호에 이어서…)



젊은 허림 가수의 모습

선교지 소식

우리교회에서도 지원하는 Kyle Wilson(카일 윌슨) 선교사는 한국에서 미국으로입양되었습니다. 듀크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하였고, 지금은 멕시코 유카탄에서 선교사로 활동합니다.

Nathaniel Academy 음악 교실

Nathaniel Academy 체육 활동

TRICITY KoAm 트라이시티 코암

Fall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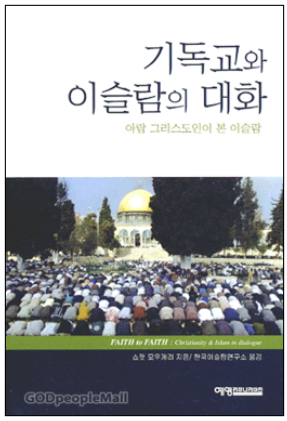
트라이시티한인장로교회 TRICITY KOREAN PRESBYTERIAN CHURCH

편집인: 임성철 목사
2109 Carolina Ave.
Bristol, TN 37620
www.tricitykpc.org
전화: 404-683-2565
Email: isaacim86@gmail.com

기고와 보내는 방법: 함께 나누고자 하는 글이 있으면 편집인의 주소나 이메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받은 사람 주소 TO;

삶을 풍요롭게 하는 도서 추천



아랍 그리스도인인 쇼켓 모우케이는 어려운 질문을 다루면서 신중하고 합리적인 논증을 통해 대담하게 분명한 답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그와 다른 답변을 제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세심한 배려와 존중하는 태도를 잃지 않고 있다. 이 책은 그리스도인과 무슬림간의 상호관계를 위해 귀중한 자료로 사용될 것이다. 두 종교인들 모두 이 책을 읽을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대화를 위한 주요 참고 자료로 사용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피터 피델 (런던 바이 칼리지 이슬람 연구센터) 430페이지.

그림으로 보는 명상

2014년 10월 10일, 노벨 평화상을 받은 파키스탄의 17살 말랄라 유사프자이, 그녀는 이슬람 문화권에서 여성 교육을 반대하는 것을 개혁하는 상징적 인물이 되었고 최연소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다.